

뉴스레터



제3권 12호 2013년 12월 8일

MONTHLY NEWSLETTER OF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편지"

담임목사 칼럼



송종남 목사

"편지"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단어로 떠오를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금처럼 인터넷이나 전자메일 같은 것들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절에는 거의 다 편지로 소식을 주고받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편지 속에는 다 반갑고 좋은 소식만 들어있던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편지가 오면 '무슨 소식이 있을까' 하고 가슴 설레며 봉투를 뜯었던 아름다운 기억들이 있습니다. 군대를 다녀온 남자들이나 객지에 살아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고향에서 부모님이 보내주신 편지를 받기만 하면 벌써 가슴이 뛰었고, 반갑고 그리운 마음에 편지를 다 읽기도 전에 눈앞이 뿌해졌던 기억이 있을 겁니다.

저도 첫 목회지였던 경기도 가평에 살 때, 우체부 아저씨를 손꼽아 기다리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루종일가도

오고가는 사람 하나 없는 산속 마을이어서, 사람 그림자조차 그리웠던 시절, 하루에 한번씩 찾아오는 유일한 사람이 우체부 아저씨였습니다. 전국에 흩어져서 모두 비슷한 상황에서 목회를 하는 친구들의 소식, 날씨가 몇일 지나서 배달되므로 신문이라고 하기엔 이미 구문이 되어 버린 도시의 소식들, 고향 교회에서 보내오는 생활 보조금까지 모두 그 우체부 아저씨가 날라다 주었습니다. 그러니 편지를 기다리던 그 시절 저의 마음이 어땠는지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미국에 살면서 우체통에서 꺼내는 봉투는 대부분 bill이므로 반갑지 않은 것이긴 하지만, 우리의 생각 속에 있는 '편지'는 대부분 반가운 것입니다. 그리움입니다. 누군가를 향한 따뜻한 마음이고 사랑입니다. 편지는 편지를 보낸 사람을 대신합니다. 편지에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적어 넣습니다. 그래서 편지를 받으면 편지를 보낸 사람을 본 듯이 반갑고 좋은 것이었습니다.

요즘 우리는 고린도후서를 가지고 매일 큐티하는데, 바울은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쓰신 편지입니다' (고후3:3)라고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묵상하면서 편지에 대한 아름다운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반가움의 대명사처럼 되어있는 편지, 그 편지가 우리들이라는 말씀이 너무나 좋습니다. 더구나 주님께서 쓰신 편지라니 더 더욱 우쭐해지고 좋습니다.

주님은 우리들을 통해 주님을

나타내고 싶으신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과 사랑과 생명이 우리들을 통해 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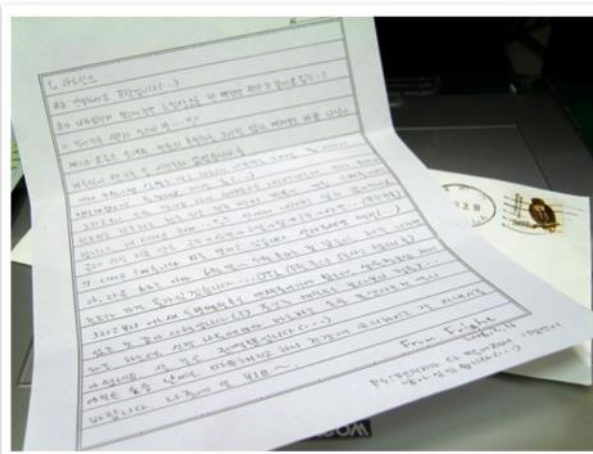
군가에게 전해져서 기쁨이 되고 소망이 되고 생명이 되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2013년이 몇일 안 남았습니다. 올해 이 지면에 마지막 칼럼을 쓰면서, 저는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은 편지를 보냅니다. 목회를 하면 할수록 부족한 것이 많다는 것을 아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주님의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 가장 큰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을 만날 때마다 편지처럼 반가움이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일 할 때마다 편지처럼 가슴이 뭉클 적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새해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반갑고, 그리고, 기다리는 편지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편지를 쓰고 계십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마음과 소원과 기쁨, 그리고 생명이 전해질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송종남 목사



“모든 것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임원회장, 박장호 장로

또 한해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뒤돌아보니, 지난 한해동안 우리의 가정과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13년은 참 놀랍고 은혜스러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교회적으로는 예배의 형식이 새롭게 바뀌었고, QT의 정착과 여러 나눔방들이 생겼고, 일대일 제자양육을 위한 교육, 새로운 관사취임, 여러 지역 노숙자 선교, 바자회..., 말씀으로 우리의 내면을 성숙시키며, 전도와 세계 선교에 중점을 두고 달려왔던 우리교회의 한해였습니다.

특히 이번 해에는 청소년부, 대학부 그리고 장년부 단기선교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했던 한해였습니다. 호피 인디언족, 아이티 선교 두번 그리고 과라니 선교등 네 팀이 파송되어서 선교지를 섬겼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한 제 2회 바자회는 전교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 은혜가운데 이루어 낸 결과였습니다.

우리교회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말씀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전력하는 교회로 변해가는 모습에 다른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2년간 임원회장직을 맡아서, 담임 목사님을 돕고, 여러 성도님들과 함께 동역하는 모든 것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교회가 주님의 소원을 최선을 다해 이루어 드리는 좋은 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시한번 모든 일에 감사를 드립니다.



화해사역 세미나를 마치고..

안의숙권사

(한인연합감리교회 여선교회
텔라웨어볼티모어
지역연합회 회장)

11월 9일, 홍혜성목사님을 모시고



강사: 홍혜성 목사

화해사역을 한지도 한달이넘은 이즈음에 화해사역을 통하여 나에게 도전하고 배운것을 얼마나 실천하고있는지를 돌아본다.

이 세미나를 듣고 내가 깨달음과 도전 받는것은, 겉모양은 믿음있는 권사지만, 내 속은 아직도 많은 관계속에서 풀지못한 매듭이 있다는것이 부끄럽다.

나는 한 남자의 아내로, 두자녀의 엄마로, 시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교회에서는 권사로 많은 관계속에서 살아간다. 하나님은 아무조건없이 나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나에게 믿음을 가져주셨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어떤 사람들과는 화목하지 못하고 산다. 세미나를 통하여 하

나님은 우리에게 화목하게하는 직분을 주셨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셨습니다.

갈등이 있을때 예수님의 대화법을 배우며 용서의 여정은 어떻게 시작해서 가야하는지를 배웠다.

아니게 상대방을 기분나쁘게 할때가 참 많았다.

이 모든것이 사랑으로 대하지 못한 나의모습이었다.

목장을 통하여 말씀 묵상을 나누며, 사도 바울의 고민, 연약한 모습



화해 사역 세미나 Peace-Making Ministry



강사: 홍혜성 목사

2013년 11월 9일 (토), 오전9시-오후4시

장소: 델라웨어 한인연합감리교회 (담임: 송종남 목사)

주최: 한인여선교회 연합회

나는 성격상 무슨문제가생기면 직접 대화하기보다 일단 넘어가기를 시도한다. 그런데 넘어간다고 그 문제가 해결되는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배웠다. 그래서 직접대화는 나에게 도전되는 행동인데 사랑이 함께 하지않으면 직접대화가 더 큰 문제가 될수있다는 것도 배웠다. 그리고 넘어가기를 잘못하면 부정한다는 뜻이되기때문에 잘못하면 상대방을 무시한다는 것이다.

나는 많은 문제앞에 무시해 버리는 경우도 많았음을 고백한다. 그래서 본의

속에서 바울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생각해본다. 그러나 중상모략하는 사람들 앞에서도 사도바울은 하나님앞에 감사를 드린다.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다.

나는 얼마나 생명으로 쫓아 생명이 이르는 냄새를 내며 살고있는지, 나를 힘들게하고 어렵게 만드는 관계속에서 얼마나 용서하고 화목하게하는 역할을 했는지 생각해 본다.

이 한해가 지나기전에 화목케 하라는 말씀을 실천하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이 말씀이 내 삶에 더욱 녹아져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며 살기를 기도해 본다.

교인 탐방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를 섬기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을 찾아 그 분들의 삶과 신앙의 이야기를 취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2013년 12월의 신앙탐방은 **임문선, 문주 (은빈, 승준) 성도님** 가정입니다.

1. 가족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델라웨어로 오신 계기는 어떻게 되시지요?

저는 울산대학교 건설환경공학부의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KOBACO)에 근무하고 있는 임문선입니다. 회사로부터 해외연수라는 귀한 선물을 받고 지난 7월에 델라웨어로 왔습니다. 현재는 UD에서 ELI과정을 듣고 있습니다. 집사람(조문주)은 평범한 주부로 두 아이의 엄마입니다. 큰 딸(임은빈)은 Skyline 중학교 6학년이고, 작은 아이는 아들(임승준)로 Linden Hill 초등학교 2학년에 재학 중입니다.



임문선, 문주 (은빈, 승준) 성도님 가족

2. 미국 오시게 된 계기와 또 이 곳 델라웨어한인교회로 오시게 된 재미있는 사연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같이 그 사연을 나눠 주시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유로 델라웨어를 해외연수지로 정했지만 사실 델라웨어에 무슨 특별한 연고가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우연에

우연이 겹치고 그 위에 감사한 인연이 쌓여서 당도하게 된 종착지가 이곳 델라웨어입니다. 그 술한 우연과 인연들 가운데 저를 델라웨어로 이끈 가장 큰 요인은 단연 송은순 사모님과 그의 인연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송은순 사모님을 알게 된 것은 미국으로 입국하기 한달쯤 전이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일정상 미국에서 살 집을 구했어야하는 시점이었는데 가계약을 끝내고 본 계약을 하려던 집이 그사이에 그만 나가 버렸다는 이메일을 타운하우스 사무소로부터 받은 직후였습니다. 초등학교생인 두 아이들과 집사람을 책임져야하는 가정의 입장이다보니 살 집이 쉽게 구해지지 않는 것에 대한 걱정이 상당했습니다. 델라웨어에는 아는 사람도 없고 그나마 많은 비지터 분들이 연락해본다는 UD 한인학생회 홈페이지는 무슨 연유에서인지 접속도 안되고..... 걱정과 근심으로 가득한 나날을 보내는 제게 많은 회사 동료들이 현지 한인 교회에 도움을 청해

볼 것을 권유 하였습니다. 교인도 아니고, 평소 큰 관심도 없어 눈길조차 잘 주지 않았던 교회에 개인적 필요 때문에 연락하는 것이 마뜩치 않은 않았습니

다만, 급한 상황에 놓이니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었습니다. 우선 UD 근처에 있는 한인 교회들을 인터넷을 통해 찾아보았습니다. 이 교회 저 교회 홈페이지를 기웃거렸는데, 가장 정돈되고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델라웨어 한인 감리교회였습니다. 그래서 델라웨어 한인감리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판에 글을 남기기로 하였습니다. 실은 “교회라고는 논산훈련소때 두어번 가본 것이 전부

인 제가(당시 게시판에 올린 문구 그대로입니다)” 올린 글에 누가 피드백이나 해줄까 싶었습니다만,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글을 올려본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웬일입니까? 바로 다음날 자고 일어나보니 송은순 사모님으로부터 반가운 메일이 한통 와있더군요. 제가 무슨 심정일지 잘 아신다며 급한대로 귀국준비 중이신 가정의 연락처를 알려주시겠다고 메일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 이후 보내주시는 메일마다 어쩌면 그렇게 행간에서 따뜻함과 배려가 느껴지던지, 한번은 제가 사모님을 알게 된 것이

“호랑이에게 쫓기던 남매가 하늘에서 내려온 동앗줄을 발견한 심정”이라는 표현을 써서 메일을 보내 적도 있었을 정도입니다. 그만큼 사모님과의 만남이 저에게는 의지할 수 있는 큰 힘이 되었고, 또한 사모님을 통해 알게 된 교회분들도 너무나 소중한 분들이었습니다. 자칫하면 쓸쓸할 수 있을 타지생활에서 너무나 좋은 분들로 가득한 목장모임을 얻었고 그 모임을 통해 아이들은 친구와 동생과 언니 오빠를 만나는 행운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집사람 역시 서툰 솜씨지만 교회 일을 도우면서 무료해질 수 있는 생활에서 보람을 찾을 수 있는 계기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교회에서 만나는 분들마다 오가며 보여주시는 따뜻한 인사와 배려의 말씀들로 인해 큰 힘을 얻고 있기도 합니다.

3. 교회 생활은 어떻게 적응하고 계신지, 또 앞으로 남은 기간 무엇을 소망하며 지내시는지 궁금합니다?

교회에 다닌지 석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았고, 기독교가 무엇인지 아직 잘 모르거나 그렇기에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한 아직 영글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런 믿음은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좋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신에 대한 믿음에는 확실히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믿음 말입니다. 델라웨어에서 지내는 동안 많은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믿음이 무엇인지 저 또한 알게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인터뷰: 강태희 집사)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대강절은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계절을 의미합니다. 한문으로는 기다릴 대(待)와 내릴 강(降)로 되어 있어 하늘에서 오신 이를 기다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으며, 영어표기인 Advent는 “오심” “도착을 의미하는 라틴어 'adventus'에서 유래된 말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의 기간을 대강절로 삼기에 대강절 첫째 주일이라는 것은 앞으로 성탄절이 한달 남았다는 말이 됩니다.

대강절 기간 동안 매 주일 보라색 촛불을 하나씩 켜며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보라색은 전통적으로 회개를 뜻합니다. (그렇기에 사순절 색도 보라색입니다.) 즉 대강절은 저희의 마음을 회개할 가운데 가다듬고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라는 뜻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즈음은 대강절 기간 동안 “희망”을 뜻하는 파랑색을 대신 쓰기도 합니다.) 이렇듯 보라색 촛불을 하나씩 켜며 예배를 드리다가 대강절 세번째 주

일에는 “기쁨”을 뜻하는 분홍색 촛불 대신 켜기도 합니다. 주님 오심을 기대하는 마음의 벽참을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대강절 촛불들 가운데 있는 하얀 초는 “거룩하고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성탄절에는 네 개의 대강절 초와 함께 이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중간의 하얀 초를 함께 켜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초 주위를 감싸고 있는 초록색의 가지는 원을 그리게 되어 있습니다. 끝이 없는 원과 같이 영원하신 그리스도의 존재를 상징하며, 푸르름은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고 계심을 나타냅니다. 그렇기에 대강절은 성탄절을 통해 이미 오신 예수님뿐 아니라, 더욱 중요하게, 앞으로 다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며 준비하는 절기입니다.

(편집부: 김미선 집사)

추천도서

“철인 (Ironman)” 저자: 다니엘 김

『주님을 위한 철인이 되라!』

이 시대는 급진적인 제자들을 기다리고 있다! 일본 후쿠오카 거리에서 복음을 외치던 소년이 미국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선교사가 되어 위험한 지역에 복음을 들고 끊임없이 움직이는 믿음의 분투기.

세계 수십 개국 복음의 불모지를 전방위(全方位)로 다니며 “내일은 환란이지 평안이 아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 긴급히 돌아오라” 라고 촉구하는 급진적 예수 선교사. 십대 시절 5년 동안 일본에서 매주 길거리 전도를 했고, 주님의 군사로서 훈련받았다며 서양인도 버겁다는 미국 육군사관학교(The Citadel)에 ‘나 홀로’ 입학. 4학년 때 전교생의 신앙을 지도하는 종교대장까지 된 철인(鐵人)전도사.

그의 설교 간증 동영상들은 유튜브에서도 합수십 만의 조회수를 기록했고, 10년 한국, 10년 일본, 10년 미국이라는 다국적 성장 과정에서 얻은 국제 경험과 언어 능력을 기반 삼아, 세계를 누비며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을 예비하자고 뜨겁게 호소하는 열정의 설교자이다.

세상이 감당치 못할 철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롬 13:14) 그분만으로 만족하여 현실과 상관없이 즐거워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다.

육신은 죽어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세상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으며, 생명의 근원이신 여호와만 경외하는 예배자이다. 그리하여 세상이 뒤집어져도 무너지지 않을 절대 믿음을 가지고 모든 현실을 돌파해내는 과격한 예수쟁이다.

그는 1977년에 외가의 4대째 믿음을 상속받고 태어나 열 살까지 한국에서 살다가, 재일교포 2세인 아버지의 고향 일본으로 건너가 17개국 학생들이 모여 영어로 공부하는 후쿠오카 국제학교(Fukuoka Int'l School)를 다녔다. 이후 도미(渡美)해 남부 찰스턴에 위치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 육사 졸업 즉시 시카고 트리니티 신학대학원(Trinity Evangelical Divinity School, M.Div.)을 다니며 한인교회 전도사로 사역했다. 2006년에 선교사 파송을 받았으며, 2007년 2월, 미국 남침례교단에서 목사 안수를 받았다.



현재 한 지역에 열흘 이상 머무르지 않고 1년 365일 끊임없이 움직이며 ‘선교사 모집, 훈련, 동원’을 기반으로 하는 복음유통사역에 힘쓰고 있다. 또한 ‘복음, 선교, 다시 오심’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온전한 예배자를 길러내는 예수 세대운동(JGM: Jesus Generation Movement)의 대표를 맡고 있다.

(도서부: 송미선 집사)

2013년 11월 포토갤러리



추수감사주일 예배 11월 24일



화해 사역 세미나 11월 9일

청소년 Initiation - 11월 30일

December 2013

12월의 일정

Sun	Mon	Tue	Wed	Thu	Fri	Sat
1 대강절 * EM 연합가족예배 * 목장지도자훈련	2 * Meals On Wheels	3	4 * 쿠르드 목장주최 수요예배	5	6 * 부흥성회 “예수로 만족하는 삶”	7 * 부흥성회 “예수로 만족하는 삶”
8 * 부흥성회 “예수로 만족하는 삶”	9	10	11 * 사이엠 목장 주최 수요예배	12	13	14
15	16	17	18 * 찬양집회 ‘True Worshiper’	19	20	21 * EM 성탄 파티
22 성탄주일	23	24 * 성탄 이브 예배 및 발표회	25 크리스마스	26 * 청소년부 SIMA	27 * 청소년부 SIMA	28 * 청소년부 SIMA
29	30	31 * 남선교회 송구영신 친교 및 송구영신예배				

January 2014 - 1월의 일정

- 1월 2일(목) - 4일(토): 신년특별기도회
- 1월 5일(주일): 주현절 신년예배, EM 연합가족예배
목장지도자훈련
- 1월 12일(주일): 임원 임명예배
- 1월 19일(주일): 남. 여선교회 총회,
생명의 삶 성경공부시작



예배와 모임 안내

중보기도	주 일	오전 10:30-10:50
1부 한어 예배	주 일	오전 8:00
영어 예배	주 일	오전 9:45
2부 한어 예배	주 일	오전 11:00
아동부 예배	주 일	오전 11:00
청소년 예배	주 일	오전 11:00
새벽 기도회	화~토	오전 6:00
수요 찬양 예배	수요일	오후 7:50
청년부 예배	금요일	오후 7:30
청소년부 성경공부	토요일	오후 7:00
여선교회 Q.T. 모임	월, 금요일	오전 10:00
아름다운 학교	목요일	오전 10:00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24
 GOD IS SPIRIT, AND HIS WORSHIPERS MUST WORSHIP IN THE SPIRIT AND IN TRUTH.”
 JOHN 4:24

델라웨어한인감리교회

Delaware Korean United Methodist Church

717 Loveville Rd.

Hockessin, DE 19707

(302) 235-5735, Fax (302)235-5736

STAMP

